

소설 속 대화 인용 구문의 번역양상 고찰: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이 현 주
(가톨릭대)

1. 서론

소설의 구성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물’일 것이다. 인물은 다른 두 가지 구성요소인 ‘배경’과 ‘사건’ 속에서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면서 때로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제의식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김미영(2006: 371) 역시 소설 속에서 “사건이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전이이며, 이 전이는 인물에 의해 매개”된다고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소설 안에서 인물은 배우 중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이 가운데 특히 특정 작품 혹은 특정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인물 형상화’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김미영 2006; 박미선 2002; 임환모 1994; 현길언 2000), 번역의 관점에서 인물 번역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고민희 2011; 김혜림 2017; 이상빈과 이선우 2018; 우경조와 임향옥 2021).

인물의 형상화란 “작가가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설 언어로 창작해서 형상화”(현길언 2000: 130)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환모(1994: 412)는 “인물의

형상화 방법으로서의 묘사 기교는 등장인물을 독자가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방법”이라며 이에 관련한 요소로 인물의 ‘육체적인 외모’나 ‘동작, 몸짓, 버릇, 습관’, ‘말씨’ 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인물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씨’, 즉, 인물의 ‘발화’ 또는 인물 간 주고받는 ‘대화’야말로 독자들을 말 없는 청자로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작가가 구축한 허구의 세계에서 살아 숨 쉬는 인물들과 소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 대화는 “등장인물이 스스로 자기의 성격을 창조하기 때문에 작가가 인물을 직접 묘사하는 방법에 비해 훨씬 생동감이 있고 리얼”(송현호 1992: 11, 이진병 2012: 331에서 재인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는 인물 간 대화 시작에 앞서 혹은 대화 사이에 작가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몸짓을 묘사하거나 심리적인 상태를 부연 설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작가가 이를 통해 인물 간 대화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발화 순서나 발화 태도, 심지어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발화 속에 숨겨진 심리상태까지도 설명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가의 서술적 개입이 바로 소설이 희곡과 다른 특징을 갖게 하는 지점일 것이다. 김홍수(2000, 2002)의 연구를 통해 대화를 인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대화의 인용 방식은 주로 언표 동사 ‘말하다’류, 화행 동사 ‘묻다’류, 발화 행동-양태 동사 ‘속삭이다, 재촉하다’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발화 동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발화 동사가 생략된 채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만 구현되는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간 대화문을 중심으로 하여 작가가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번역가 개입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번역가의 개입을 오역의 측면이 아니라, 번역가가 원작과 번역 사이에서 그가 속한 언어와 문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번역전략’이라고 보고 그 번역전략이 가져오는 효과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박옥수(2013: 17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자는 기본적으로 “원문에의 충실성을 고수하는 것과 대상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이러한 고심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은 번역자의 몫이며, 번역자는 저자의 의

도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현실 세계에서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역할을 되바꿔가며 그 말 차례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반면 소설 속에서 대화는 작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등장인물들의 말 차례를 조정하며 이루어진다. 이처럼 말 차례 조정을 위한 작가의 개입은 주로 쌍따옴표로 인용되는 인물 간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나 대화가 끝나는 시점, 혹은 대화문 사이에 직접 발화 동사를 삽입하는 형태로 직접 인용 혹은 직접화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발화 동사 대신 인물의 태도나 행위, 심리 등을 묘사하는 표현 등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독자에게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박옥수(2013: 171)는 ‘지문’과 ‘대화’의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문은 화자가 증개하거나 개입해서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의 현상과 심리, 정서 등을 묘사하거나 논평한다. 반면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는 대화는 지문보다 더 정제된 방식과 형태로 소설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는 작품의 서사에 근거를 제공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한다(박옥수 2013: 171).

한편, 신혜정(2016a, 2016b, 2017)은 영어에서 대화문 중간에 삽입되는 인용 방식을 가리키는 ‘Suspended Quotation’ 혹은 ‘Suspensions’의 개념을 한국어로 ‘대화문 중간 삽입문’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대화문 + 지시문 + 대화문’ 형태로 대화문 중간에 삽입된 다섯 단어 이상의 지시문”(신혜정 2016a: 103-4)을 의미하며, 이에 관해 말베르크와 스미스(Mahlberg and Smith 2010: 463)는 4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화 조직(Speech Organization), 2) 몸짓 언어(Body Language), 3) 화자의 대화 해석, 4) 직접적인 인물 성격 묘사”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김홍수(2000, 2002)는 “소설 대화의 인용·제시 방식과 양상”을

유형화하는 가운데 대화문을 분석하며 인물의 발화 또는 대화 이외의 부분을 ‘인용 구문’ 혹은 ‘인용부’라는 용어로 개념 지어 분석하였다. 특히 직접 인용 구문을 제대로 갖춘 경우인 ‘직접 인용·화법’에서 1) 인용 동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2) 인용 동사가 대화와 분리되어 대화 앞에 오는 경우, 3) 직접 인용 구문 중 인용 발화 부분이 행을 달리해 제시되는 경우, 4) 두 발화 이상이 직접 인용 구문으로 접속되는 경우, 5) 직접 인용 구문이 지문에 삽입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김홍수 2000: 1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속에서 인물 간 대화의 인용을 나타내는 구문에 관해 정의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대화의 시작과 끝, 혹은 대화 중간에 삽입되어 대화문을 인용하기 위해 서술하는 지문 부분을 ‘(대화) 인용 구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또한, 쌍따옴표로 묶이는 ‘직접 인용문’¹⁾ 형태의 대화문에서 나타나는 대화 인용 구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1 분석대상

한국 출판시장에서 중국현대소설은 중문학도들에게 물어도 읽은 책이 몇 권 되지 않을 만큼 일반 독자들로부터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일본 소설이 한국에서 출판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출판연감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번역된 책은 총 12,01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문학’ 분야만을 살펴보면, 총 2,702건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일본어에서 번역된 문학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38.3%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미국(542건), 영국(268건), 프랑스(199건), 중국(189건)으로 이어진다²⁾.

1) 김혜영(2014: 87)은 “소설에서 직접 인용문은 등장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문장으로서, 대화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현대문학으로는 드물게 스테디셀러로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크게 두 작품을 거론할 수 있다. 다이허우잉(戴厚英)의 『사람아 아, 사람아』와 위화(余華)의 『허삼관매혈기』다. 전자는 그 번역가가 이미 저서 『감옥으로부터 사색』으로 널리 알려진 ‘신영복’이기에 주목받고 필독서로 선정되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후자는 본래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으로 중국 번역서로는 드물게 한국 출판시장에서 나름의 선전을 하고 있던 작품이기도 했지만, 특히 2015년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허삼관」이 개봉되면서 한국 독자들에게 더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람아 아, 사람아』는 1970년대 중국의 어두웠던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다소 무겁게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어내는 지식인들의 고충을 다루고 있는 반면, 『허삼관매혈기』는 이와 비슷한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 가장의 인생을 통해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허삼관매혈기』가 한국 출판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히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꼽자면 가족을 위해 매혈, 즉, 피를 팔아 힘겨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의 정서를 담은 그 주제의식과 작가 위화 특유의 해학적인 스토리텔링의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영(2016: 205)은 작가 위화는 『허삼관매혈기』에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통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서사를 의문스럽고 익살스럽게 묘사하면서 가벼움의 미학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성욱(2015: 176)은 “위화의 소설 중에서도 『허삼관매혈기』가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이유는 역시 그 비애의 인생사를 특유의 낙관과 웃음으로 풀어낸 비범의 아이러니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허삼관매혈기』는 원작의 작품성과 작가 특유의 해학적인 필체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점들이 어떻

2) 해당 통계 자료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http://kpa21.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았다(2022년 1월 26일 검색). 해당 자료는 총 1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위 본문에서는 ‘문학’ 분야로 국한하여 살펴본 수치이며, 분야를 불문하고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역시 일본이 5,164건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3,253건), 영국(921건), 프랑스(637건) 순으로 이어졌고, 5위가 바로 중국으로 529건이었다.

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도 그 의의가 있지만, 작가 위화가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더 이상 등장인물을 호령하는 주재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받아 적는 기록자에 불과하다”(김봉연 2005: 203)고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작품 안에서 특히 인물의 발화, 인물 간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허삼관매혈기』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인물 간 대화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화 인용 구문의 번역양상을 번역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2 분석방법

번역의 각도에서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대화문을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적지 않는데 복수의 번역본을 상호대조하며 다양한 한국어의 종결어미의 각도에서 대화체를 분석하거나(권은희와 성초림 2014; 원은하, 김성희, 전주영 2021), 대화체에서 드러나는 생략된 어법의 번역방법을 귀납적으로 분류하거나(박옥수 2013),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단락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는(김혜영 2013)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신혜정(2016a, 2016b, 2017)은 영어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영문 소설에서 나타나는 대화문 중간에 삽입되는 문장의 한국어 번역양상과 한국어 문학작품의 대화가 영어로 번역될 때 이러한 문장의 형태를 활용하여 번역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번역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그의 연구는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직접 인용되는 대화문의 시작과 끝, 중간에서 나타나는 인용 구문을 모두 포함하여 그 번역양상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아래 <사례 1>을 통해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화 인용 구문이 구체적으로 중국어 원문(source text, 이하 ‘ST’)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과 특징에 관해 살펴보며 분석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사례 1: 허삼관과 할아버지, 2인의 대화>

[ST]

(…)³(1)看了一会儿后问他:

“我儿, 你的脸在哪里?”

- (2)许三观说: “爷爷, 我不是你儿, 我是你孙子, 我的脸在这里……”
 许三观把他爷爷的手拿过来, 往自己脸上碰了碰, 又马上把爷爷的手送了回去. 爷爷的手掌就像他们工厂的砂纸.
- (3)他爷爷问: “你爹为什么不来看我?”
 “我爹早死啦。”
- (…) (4)爷爷说:
 “我儿, 你身子骨结实吗?”
 “结实。”(5)许三观说, “爷爷, 我不是你儿……”
- (6)他爷爷继续说: “我儿, 你也常去卖血?”
 (7)许三观摇摇头: “没有, 我从来不卖血。”
 “我儿……”(8)爷爷说, “你没有卖血; 你还说身子骨结实? 我儿, 你是在骗我。”
 “爷爷, 你在说些什么? 我听不懂, 爷爷, 你是不是老糊涂了?”
 许三观的爷爷摇起了头, (9)许三观说:
 “爷爷, 我不是你儿, 我是你的孙子。”
 “我儿……”(10)他爷爷说, “你爹不肯听我的话, 他看上了城里那个什么花……”
 “金花, 那是我妈。”

위 ST는 『허삼관매혈기』 서두에 등장하는 주인공 허삼관과 그의 할아버지가 나누는 짧은 대화다. 이 대화 내용을 통해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 이외에도 독자는 소설 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사건인 ‘피를 파는 매혈(賣血) 행위’가 당시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ST에서 ‘괄호 숫자’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화 인용 구문이다. 이는 그 기능으로 볼 때, 대화의 시작에 앞서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내며 말 차례를 명시화하고, 대화 사이에 삽입되어 인물의 행위나 심리를 묘사하거나 재차 발화의 주체를 상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표현의 방식으로 볼 때, 주로 인용동사 “说”와 함께 쓰이며, 인용 구문이 단락을 새롭게 구성하며, 문장부호 콜론 혹은 쉼표와 쌍따옴표가 함께 쓰여 직접 인용문의 형태를 보인다. 즉, 대화를 직접 인용하기에 앞서 [주어+인용동사]와 콜론 또는 쉼표를 찍어주고 쌍따옴표로 엮어 말을 시작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3) 사례 안에 삽입된 “(…)”는 전락, 중락, 후락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한 인물의 연속되는 발화 중간에 ‘~이/가 말했다’라는 식의 인용 구문을 삽입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예컨대, ST의 (5)“许三观说,” (8)“爷爷说,” (10)“他爷爷说,”을 보면, 모두 같은 형식으로 [주어+‘말하다(说)’인용 동사+삽입표(,)]의 구조가 동일한 한 인물의 발화 중간에 삽입되어 발화의 휴지(休止)를 발생시킨다. 이는 영어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였던 ‘Suspended Quotation’의 형태가 중국어 소설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Suspended Quotation’은 영미권 문학에서도 자주 보이는 형태로서, 안정효 (2006: 92, 신혜정 2016a: 98에서 재인용)는 “‘Yes,’ Juliet said, ‘I love you.’”라는 영어의 예문을 들어 발화 내용과 발화 주체가 행을 달리하여 다른 단락을 구성하는 우리말과 다른 형식으로 단락이 구성되는 영어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대화 인용 구문이 중국어 ST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사례 1> ST에서 나타나는 대화 인용 구문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 TT를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번역양상과 번역을 통해 구현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1> ST에 대응하는 한국어 T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T]

(…) 할아버지는 그의 코앞에 얼굴을 바짝 대고(T1)물었다.

“아들아, 네 얼굴이 어디 있는 거냐?”

(T2-Ø4)“할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손자예요. 제 얼굴은 여기……”

허삼관은 할아버지의 손을 가져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게 했다. 할아버지의 손은 마치 공장의 사포 같았다.

(T3-Ø)“네 아버지는 왜 날 보러 오지 않는 게냐?”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할아버지는 (…) (T4)말을 이었다.

“아들아, 네 뼈대는 좀 쓸 만하냐?”

“튼튼하죠. (T5-Ø)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T6)할아버지는 허삼관의 말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물었다.

4) 해당 부호는 ST에서는 나타나는데 TT에서는 생략된 경우를 나타낸다.

“아들아, 너도 피 팔러 자주 가느냐?”

(T7)허삼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뇨, 전 피를 판 적이 없는데요.”

(T8∅)“피도 안 팔아봤으면서 무슨 뼈대가 튼튼하다는 소릴 하느냐?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무슨 말씀이신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노망드신 거 아녜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T9)잠시 후 허삼관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전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손자예요.”

(T10⁵)할아버지는 허삼관의 말엔 대꾸도 없이 계속 탄소리만 늘어놓았다.

“아들아, (T10-∅)네 아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성안의 그 누구냐, 그 무슨 ‘화’인가 하는 계집한테 폭 빠져 가지고는……”

“금화요, 그게 우리 엄마잖아요.”

본고에서 귀납적으로 분류한 번역방법은 <사례 1>의 번역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4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례 1>의 ST와 TT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4.1 인용 구문을 생략한 번역

위 <사례 1>의 ST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아버지와 손자 허삼관의 짧은 대화에서 [주어+인용동사]의 구조가 총 10번 출현한다. 반면, TT에서는 6번 나타난다. 이를 통해 TT에서는 대화 인용 구문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글쓰기 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특징을 반영한 번역으로 해석된다. 한국어에는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5) 해당 부호는 ST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삽입되어 번역된 경우를 나타낸다.

명시하지 않아도, 인물 간 대화 가운데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의 활용을 통해 인물 간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례 1>에서도 굳이 발화자가 허삼관과 할아버지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 부분에서 높임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물 간 관계가 명확해지고, 독자는 연속적으로 연속되는 대화 안에서도 발화자가 누구인지 혼동하지 않고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 인용 구문을 생략하고 연속되는 대화로 번역하면 “독자는 대화의 내용, 흐름, 분위기에 쉽게 몰입, 동화된다”(김홍수 2000: 115)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화 안에서 드러나는 ‘지칭어’나 ‘호칭어’를 통해 발화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한 대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2인인 경우에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화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독자는 충분히 발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사례 1>을 통해 볼 때, ST에서는 대화 속에 호칭이 등장해 화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동사를 포함한 인용 구문을 삽입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어 TT에서는 호칭이 등장하는 대화 전후에 등장하는 인용 구문을 생략해 주고 있다. 인용 구문의 번역이 생략된 (2), (3), (5), (8), (10)의 예문을 보면, 인용 구문 전후에 각각 “爷爷(할아버지)”, “你爹(네 아버지)”, “爷爷(할아버지)”, “我儿(아들아)”, “我儿(아들아)”라는 호칭어가 등장한다. 물론 한 대화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용 구문의 번역 생략에 제약이 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 2>가 바로 그러하다.

<사례 2: 허삼관과 방씨, 근룡이, 3인의 대화>

[ST]

这次阿方和根龙挑着西瓜走在了一起, 许三观走在一边, 听着他们的担子吱呀吱呀响, (1)许三观边走边说:

“你们挑着西瓜走了一路, 我来和你们换一换。”

(2)根龙说: “你去换阿方。”

(3)阿方说: “这几个西瓜挑着不累, (…)”

(4)许三观问他们: “你们刚才说李血头, 李血头是谁?”

“李血头, ”(5)根龙说, “就是医院里管我们卖血的那个秃头, (…)”

(6)阿方接着说: “这就像是我们村里的村长, (…)”

- (7)许三观听了以后说:“所以你们叫他血头。”
(8)阿方说:“有时候卖血的人一多,医院里要血的病人又少,这时候就看谁平日里与李血头交情深了,谁和他交情深,谁的血就卖得出去……”
(9)阿方解释道:“什么是交情?拿李血头的话来说,就是‘不要卖血时才想起我来,平日里也要想着我’。什么叫平日里想着他?”
(10)阿方指指自己挑着的西瓜,“这就是平日里也想着他。”

[TT]

방씨와 근룡이는 수박을 담은 멜대를 함께 지고, 허삼관은 그 멜대에서 나는 삐익삐익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T1-Ø)

“힘들 텐데 나랑 교대합시다.”

(T2-Ø)“방씨 아저씨하고 교대하세요.”

(T3)방씨가 말했다.

“이까짓 수박 여섯 통 지는 건 힘든 일도 아니지.(…)”

(T4)허삼관이 물었다.

“당신들이 아까 말한 이 혈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이 혈두라”

(T5)근룡이가 말했다.

“그자는 병원에서 피 파는 걸 관리하는 대머린데요, (…)”

(T6)방씨가 말을 이었다.

“그자는 춘장 같은 사람이지. (…)”

(T7)허삼관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그래서 혈두(血頭)라고 부르는 거군요.”

(T8-Ø)“간혹 피를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피가 필요한 사람은 적을 때가 있지 않겠어? 그때는 바로 평소에 누가 이 혈두와 교분이 두터운가가 중요하지. 그자와 교분이 두터운 사람의 피가 팔리게 된다 이 말씀이야…….”

(T9-Ø)여기서 말하는 교분이란 무엇이나? 이 혈두의 말을 빌리자면 ‘피를 팔지 않을 때도 자기를 생각하고, 평소에도 늘 자기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 평소에 그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면 말이야.”

(T10)방씨는 지고 있던 수박을 가리키며 푸념했다.

“이게 바로 평소에 그를 생각하는 거지.”

위 <사례 2>는 등장인물 세 명이 나누는 대화다. 3인의 대화에서는 발화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말 차례의 전환을 나타내는 의미의 인용 구문이 대부분 충실하게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분

석한 바와 같이 ‘지칭어’나 ‘호칭어’를 통해 발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ST에 명시되어 있는 인용 구문이 생략되는 양상을 보인다. 독자는 (T2-∅)에서와 같이 인용 구문의 번역이 생략되어도 대화문 서두에 언급된 ‘방씨 아저씨’를 통해 바로 ‘근룡’이가 한 말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한, ST의 (8), (9), (10)은 방씨의 말이다. ST에서는 방씨 한 사람의 발화 내용이 길어지면서 이를 (9)“阿方解释道(방씨가 설명하였다)”와 (10)“阿方指指自己挑着的西瓜(방씨는 자신의 수박을 가리켰다)”의 인용 구문을 삽입하여 한 인물의 말을 끊어주며 휴지를 발생시켰다. 신혜정(2017: 855)은 “한국어 독자는 휴지에 민감하지 않으며 대화문을 중간에서 끊는 문장 형태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원문에서도 나타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인용 구문의 사용이 가져오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인물의 발화 내용에 삽입된 인용 구문의 번역을 생략하는 것은 한국인 독자에게 친근한 단락의 구성방식을 반영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4.2 다양한 인용동사로의 번역

위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 ST에서는 주로 ‘말하다(说)’와 ‘묻다(问)’라는 의미의 인용동사들이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⁶⁾, 한국어 TT에서는 이러한 인용동사가 다양한 인용동사로 번역되고 있다. (T4)과 (T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인용동사 ‘说’을 ‘말을 이었다’라고 번역하여 단조롭게 ‘말했다’로 번역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중국어 ST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말하다(说)’ 동사가 소설 전반에서 어떠한 인용동사로 번역되는지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6) 물론 중반부에서는 인물의 격한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소리치다’라는 의미의 ‘叫’가 많이 쓰이기도 하였다.

<표 1> ‘說’가 다양한 인용동사로 번역된 예

ST	TT
许三观的叔叔说:	삼촌이 먼저 말을 걸었다.
年长的女人说:	나이 많은 여자가 중얼거렸다.
阿方在下面说:	방씨가 아래쪽에서 대답했다.
阿方对许三观说:	잠시 후 방 씨는 허삼관에게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阿方对许三观说:	방씨도 나서서 허삼관을 말했다.
许三观对阿方他们说:	방씨와 근룡이에게 말을 건넸다.
阿方说:	이번엔 방씨가 끼어들었다.
对他们说:	입을 열었다.
根龙说:	근룡이가 말을 받았다.
阿方说:	방씨가 거들었다.
这时根龙说:	이때 근룡이가 말꼬리를 낚아챘다.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의 ‘說’동사가 ‘말을 걸다’, ‘중얼거리다’, ‘대답하다’, ‘설명을 덧붙이다’, ‘말리다’, ‘말을 건네다’, ‘끼어들다’, ‘입을 열다’, ‘말을 받다’, ‘거들다’, ‘말꼬리를 낚아챈다’ 등의 다양하게 세분화된 인용동사로 번역되었다.

이 밖에도, <사례 1>과 <사례 2>에서 본래 ST에서는 인용동사가 없었으나 TT에서는 인용동사가 첨가되어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1>의 (T7)에서 ‘대답하다’, <사례 2>의 (T10)에서 ‘푸념하다’라는 인용동사가 첨가되어 번역되었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인용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에서는 각각 “고개를 가로짓는” 행위와 “지고 있던 수박을 가리키는” 행위 등 인물의 행위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4.3 첨가의 번역

인용동사로 번역하면서, 번역가가 상황을 묘사하는 말을 첨가하여 번역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사례 1>의 (6)他爷爷继续说, (9)许三观说, (10)他爷爷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번역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T6) 할아버지는 허삼관의 말을 가로막고 계속 물었다.
- (T9) 잠시 후 허삼관이 다시 말을 이었다.

(T10^o) 할아버지는 허삼관의 말엔 대꾸도 없이 계속 탄소리만 늘어놓았다.

ST에서 나타나는 인용 구문을 그대로 그 의미만을 옮기자면 (T6)은 “할아버지는 계속 물었다”, (T9)는 “할아버지가 말했다”, (T10)은 “허삼관이 말했다”에 불과하다. 즉, ST에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인용동사]와 같이 간략한 구조의 인용 구문인 것이다. 번역가가 ‘허삼관의 말을 가로막고’, ‘잠시 후, 다시’, ‘허삼관의 말엔 대꾸도 없이 계속 탄소리’ 등의 표현을 첨가한 것이다. 앞서 말베르크와 스미스가 분류한 ‘Suspended Quotation’의 기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 인물의 발화 중간에 삽입되는 인용 구문은 그 첫 번째 기능인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면서 대화를 조직해 나가는 것 외에도 인물의 몸짓을 묘사하거나, 인물의 발화 내용을 해석하거나, 나아가 발화 내용을 통해 직접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 <사례 1>의 중국어 ST에서는 대화 인용 구문이 주로 ‘대화를 조직’하는 기능에만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어 TT에서는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허삼관의 말을 가로막고’라든지 ‘허삼관의 말엔 대꾸도 없이’라고 하여 [주어+인용동사]의 구조에 인물의 몸짓이나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을 첨가해 번역함으로써 인물의 생동감이 더해지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아래 <사례 3>에서는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ST에는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번역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례 3: 부부 사이의 다툼을 둘러싼 주변 인물 간 대화>

[ST]

许三观看到许玉兰坐到门槛上一哭, 脑袋里就嗡嗡叫起来, (1)他在许玉兰的背后喊:“你回来, 你别坐在门槛上, 你哭什么?(…)”

他们的邻居一个一个走过来, (2)他们说: “许玉兰, 你哭什么……是不是粮票又不够啦……是不是许三观欺负你了, (…)”

(3)二乐说: “不是, 你们说的都不是, 我妈哭是因为一乐长得像何小勇。”

(4)他们说: “噢……是这样。”

(5)一乐说: “二乐, 你回去, 你别在这里站着。”

(6)二乐说: “我不回去。”

(7)三乐说: “我也不回去。”

(8)二乐说: “妈, 你别哭了, 你回去。”

(…)

(9)许玉兰说: “我前世造了什么孽啊?(…)”

[TT]

허옥란이 문간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허삼관은 머리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T1∅)

“이리 와. 문간에 앉지 말라구. 왜 우는 거야? (…)”

(T1∞)허삼관이 허옥란의 등 뒤에서 소리를 치자 이웃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며 (T2)물었다.

“옥란이, 왜 우는 거야? 양식 배급표가 또 부족한 거야? 아니면 삼관이 괴롭히기라도 했나? (…)”

(T3)이때 이락이가 쩍싸게 끼어들어 말했다.

“아니예요, 엄마가 우는 건 형이 하소용을 닦았기 때문이에요.”

(T4∅)“음, 그렇구나.”

“이락아,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

(T5)일락이가 말했다.

“난 안 들어가.”

(T6)이락이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도 안 들어가.”

(T7)삼락이가 이락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엄마, 울지 말고 들어가요.”

(T8)일락이는 우는 엄마를 달랬다. (…)

(T9∅)“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누. (…)”

위 <사례 3>에서는 허삼관과 그의 아내 허옥란, 세 아들 일락, 이락, 삼락 이와 이웃들이 등장하여 각각 발화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짧은 대화문 가운데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ST에서는 (1)他在许玉兰的背后喊을 제외하고 모두 주어만 달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주어+인용동사] 구조의 인용 구문이 대화 중간에 삽입되고 있다. 이를 직역하면 곧 “이웃들이/일락이가/이락이가/삼락이가/허옥란이+말했다”가 된다. 그러나 한국어 TT를 보면, 이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역되고 있다.

(T3)이때 이락이가 쩍싸게 끼어들어 말했다.

- (T6)이락이는 말을 듣지 않았다.
 (T7)삼락이가 이락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T8)일락이는 우는 엄마를 달랬다.

ST에서는 ‘말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의 인용동사로만 표현되고 있으나 TT에서는 인물의 행위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첨가되어 번역되었다. 이는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ST에서는 인용 구문을 통해 단순히 ‘누가’ 발화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말 차례를 전환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번역가는 여러 인물이 번갈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첨가하여 번역하면서 세 아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들어가라는 한 살 터울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른들의 대화에 ‘뺨짜게 끼어드는’ 모습은 둘째 아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며, 역시 큰 형의 들어가라는 말에 둘째 형 ‘이락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막내의 행동은 철없는 막내의 모습을 실감 나게 묘사한다. 또한, 첫째 일락이가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엄마와 아빠의 다툼을 구경하며 참견하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동생들을 챙기며 ‘우는 엄마를 달래는’ 모습은 소설 안에서 내내 그려지는 일락이의 모범적이면서도 우직한 성격을 반영한다. 이처럼 인용 구문을 단순히 발화 주체가 누구인지만을 명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행위가 드러나게 번역함으로써 독자는 머릿속에 더욱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4.4 인용 구문을 도치한 번역

위 <사례 1> ST에서 나타나는 (10)他爷爷说가 ST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번역되지 않고, 발화 시작 전으로 인용 구문의 위치를 도치하여 번역되었다. 이처럼 한 인물의 발화 중간에 인용 구문이 삽입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생략의 방법이나 이를 아예 인물의 발화 시작 전이나 발화 완료 후로 도치하여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의 글쓰기 관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사례 4>에서도 이를 반영한 번역을 엿볼 수 있다.

<사례 4: 결혼 전 허삼관과 허옥란의 대화>

[ST]

(1)许玉兰惊叫起来, “你凭什么要我嫁给你?”

(2)许三观说: “你花掉了我八角三分钱。”

“是你自己请我吃的, ”(3)许玉兰打着囔说, “我还以为是白吃的呢, 你又没说吃了你的东西就要嫁给你……”

[TT]

(T1)허옥란이 놀라 외쳤다.

“내가 왜 당신한테 시집을 가요?”

(T2∅)당신한테 오늘 쓴 돈이 모두 팔십삼 전이나 된다고?”

“당신이 그냥 대접한 거 아니요? (T3∅)난 그저 공짜로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것들을 먹으면 당신한테 시집가야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T3∞)허옥란이 딸꾹질을 하면서 말했다.

ST에서는 허옥란의 전체 발화 사이에 ‘허옥란이 딸꾹질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을 삽입하여 한 인물의 연속된 발화를 끊어주며 휴지를 발생시키지만, 한국어 TT에서는 이를 전체 발화 완료 후로 도치하여 줌으로써 발화의 연속성을 보존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인용 구문과 대화문의 단락을 다르게 구성하는 한국어의 글쓰기 관습상으로 볼 때, [대화문 + 인용 구문] 혹은 [인용 구문 + 대화문]으로 단락을 구성하여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발화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 단락을 달리 구성하면서 나타나는 [대화문 + 인용 구문 + 대화문]의 구조는 오히려 한 인물의 발화가 인용 구문의 삽입으로 인해 연속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 발화의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용 구문이 도치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사례 3>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3> ST의 (1)他在许玉兰的背后喊을 보면, 그 위치가 발화 시작 전이지만, TT에서는 발화를 마친 후의 상황으로 연결되며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허삼관이 소리를 치는 상황’과 곧바로 이어지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상황’이 전후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문맥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인용 구문의 위치를 바꿔 번역하는 것은 한국어 TT 내의 전후 맥락을 더욱 자연스럽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을 탐색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의 양상을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번역방법을 분류하고 번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위화의 『허삼관매혈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위화는 그의 모든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될 만큼 한국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작가로서, 특히 『허삼관매혈기』는 국내에서 영화화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위화는 작가 특유의 해학적인 필치로 『허삼관매혈기』의 등장인물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특히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허삼관매혈기』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과 그 번역방법을 분류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는 영미권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한 인물의 발화 중간에 인용 구문을 삽입하는 양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소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한국어에서 대화 인용 구문은 주로 인물의 발화 시작 전이나 발화 완료 후에 나타나며, 더욱이 한 인물의 발화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중국어에서 대화 인용 구문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주로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말 차례의 전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인용동사로 ‘말하다’, ‘묻다’라는 의미의 ‘说’와 ‘问’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인용 구문의 몸짓 묘사, 발화의 의미 해석, 인물의 성격 묘사 등과 같은 기능보다 대화를 조직하는 기능 위주로 인용 구문이 사용되는 것은 종결어미를 통해 발화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발화만으로 그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허삼관매혈기』의 대화문에서 나타나는 인용 구문의 번역양상을 살펴본 결과, 총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인용 구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로 인용 구문이 인물 간의 말 차례 전환을 위해 삽입되었을 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인용 구문이 없어도 호칭어나 지칭어, 종결

어미 등을 통해 인물 간 관계 파악이 쉽고, 이로써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 차례 전환을 위해 사용한 인용 구문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중국어 ST에서 단순히 ‘말하다’와 ‘묻다’ 등으로 표현된 인용동사를 다양한 인용동사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예컨대, ‘说’를 단순히 ‘말하다’라고만 번역하는 데서 벗어나 ‘말을 걸다/중얼거리다/대답하다/설명을 덧붙이다/말리다/말을 건네다/끼어들다/입을 열다/말을 받다/거들다/말꼬리를 낚아채다’ 등의 다양한 인용동사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셋째, 중국어 ST에는 없는 인물의 몸짓을 묘사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취한 번역전략으로서 인물 간 대화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인용 구문의 위치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한 인물의 발화를 끊어주며 등장하는 인용 구문을 발화 시작 전이나 발화 완료 후의 위치로 바꾸어 번역하여 인물 발화의 연속성을 보존해 주어 독자의 대화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주었다.

본 연구는 중국 소설 속 대화문에서 인물의 발화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누군가 말했다’라는 구문이 한국인 독자인 필자에게는 무의미해 보였고, 이에 이러한 구문이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중국어 소설 속의 대화 인용 구문의 번역방법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번역방법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을 탐색하여 한국어와의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번역방법을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어 소설 속의 ‘누군가 말했다’라는 형태의 인용 구문의 경우, 호칭어나 종결어미를 통해 발화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하거나 다양한 인용동사로 번역하는 방법은 더 한국어다운 번역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번역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 인물의 발화 중간의 나타나는 인용 구문의 경우, 한국어 소설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방법이나 중국어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이는 인물의 발화 시작 전이나 발화 완료 후로 도치하여 번역하는 것이 연결되는 한 발화에서 휴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로써 한국인 독자가 소설 속 인물 간 대화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화 인용 구문의 특징과 그 번역방법을 살펴보았기에 본고의 분석결과는 해당 작품의 작가와 번역가의 문체적 특징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서론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소설 속에서 인물의 대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대화문 자체의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대상을 여러 작품으로 확대하여 이와 같은 번역방법들이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아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기인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혹은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대화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는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민희 (2011) 「홍루몽(紅樓夢)의 대화(對話) 번역 - 등장인물의 개성표현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51: 201-234.
- 권은희, 성초림 (2014) 「소설 속 대화문에 나타나는 한국어 문장종결어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15(2): 7-32.
- 김미영 (2006) 「1980-90년대 한국 여성소설의 남성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369-390.
- 김봉연 (2005) 「고난을 이겨내는 한 방식에 대하여—余華의 《活着》와 《許三觀賣血記》의 경우」, 『中國語文論譯叢刊』 15: 199-224.
- 김혜연 (2010) 「문학작품 대화문의 대화분석적 접근」, 『언어연구』 27(3): 535-556.
- 김혜림 (2017) 「중한 소설 번역의 인물형상화와 서술어 변환 양상 고찰: 라오서(老舍)의 『낙타상즈(駱駝祥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3): 27-53.
- 김혜영 (2014) 「직접 인용 구문의 번역 글쓰기 연구」, 『번역학연구』 15(3): 83-124.
- 김홍수 (2000) 「소설에서 대화 인용의 방식과 양상」, 『語文學論叢』 19:

113-142.

- 김홍수 (2002) 「소설의 대화 인용에서 인용 동사 표현의 양상 - 발화 동사 “말하다”의 쓰임을 중심으로」, 『語文學論叢』 21: 165-182.
- 박미선 (2002) 「김석범 문학의 4.3 대응 방법 연구 - 단편 소설의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 117-129.
- 박옥수 (2013) 「한영문학 번역의 대화체에서 드러난 생략어의 번역」, 『동화와 번역』 25: 171-192.
- 신혜정 (2016a) 「소설 대화문 번역의 단락구성 연구 - 『오만과 편견』의 대화문 중간삽입 지시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4): 95-116.
- 신혜정 (2016b) 「영-한 번역소설의 서스펜션 번역 연구 -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위대한 유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 895-912.
- 신혜정 (2017) 「한-영 번역소설의 서스펜션 활용 연구」, 『인문사회21』 8(2): 853-870.
- 원은하, 김성희, 전주영 (2021) 「소설 속 대화의 번역: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문체적 활용」, 『번역학연구』 22(1): 81-107.
- 이상빈, 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147-176.
- 이선희, 신지연 (2017) 「余華의 『許三觀賣血記』에 나타난 반복 서술과 번역양상 고찰」, 『외국학연구』 39: 243-267.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이진병 (2012) 「언어적 기제를 통해 본 『탁류』의 흐름 - 대화문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2: 329-355.
- 임환모 (1994) 「황순원 단편소설의 인물 성격화의 방법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1: 409-436.
- 전성욱 (2015) 「위화(余華) 소설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 『중국현대문학』 73: 159-188.
- 현길언 (2000) 「소설 인물의 본성과 소설의 주변성」, 『현대소설연구』 12: 129-148.

<인터넷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 「2020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 Available at
<http://member.kpa21.or.kr>

<분석자료>

余华 위화 (2008) 『许三观卖血记』 허삼관매혈기, 北京 베이징: 作家出版社
작가출판사.

최용만 역 (2007) 『허삼관매혈기』, 서울: 푸른숲.

[Abstract]

**A Narrative Analysis of Dialogue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許三觀賣血記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Hyun-jo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dialogues of characters in a literary text are believed to be a crucial device through which the author may immerse themselves in the story and empathize with their characters. In particular, the flow of the narrative, which is interposed between direct speech in dialogues, has informative functions that allow readers to fully comprehend the scene. Translators need to fully comprehend dialogue intention to maintain the effect. Distinctions exist between the author's narratives in relation to dialogues in a Korean translation and a Chinese original text. Writing conventions in the two languages for an author's narrative differ, so direct speech and position of narratives in Chinese ar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nguage norms. To investigate narrative dialogue translation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d the Chinese novel 許三觀賣血記, published in English as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by Yu Hua (余華) and the novel's Korean translation. Analysis found four distinct translation approaches. First, direct speech was eliminated when the subject of speech in the scene was straightforward. Second, indirect speech using verbs such as 'say (說)' and 'ask (問)' was changed into direct speech. Third, additional adverbs and adverbial clauses not present in the original text were added to the translated text to indicate a character's gesture or emotion. Last, the position of the dialogue narratives was changed.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dialogue translation, translation intervention, quotative verbs, translation strategy

주제어: 문학번역, 대화문 번역, 번역개입, 인용동사, 번역전략

이현주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전공 강사

zhou99@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코퍼스, 번역교육

논문 투고: 2022년 2월 2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